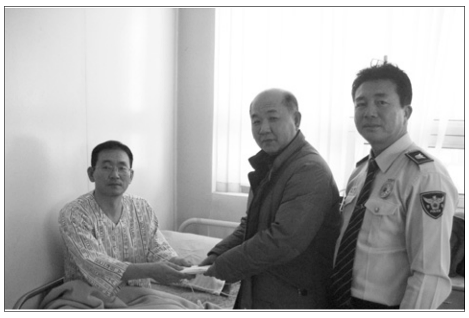
노인회 60세 이상 구직 접수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지회장 김완식)는 만 6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직 접수를 받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노인회 사무실에 있는 노인취업센터를 방문하면된다. 〈문의 : 681-8154〉 최광호 기자

죽왕파출소 박만규 경위에 성금



지난 8일 선천성 질환으로 투병중인 아들을 위해 자신의 장기를 이식해 주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고성경찰서 죽왕파출소 박만규 경위에게 동료 경찰관들이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벌여 모인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박 경위는 "동료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준 동료들에게 한없이 고마움을 느낀다, 빨리 완쾌되어 동료들의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호 기자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속초소방서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신·개축하는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공간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속초·고성·양양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86건 중 주택화재가 78건으로 41.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후배들 폭행·상습 갈취 학생 검거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후배들 괴롭혀 … 고성경찰서 학교폭력 엄중 처벌

고성경찰서(서장 홍순광)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같은 학교 후배 5명으로부터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한 피의자 J모군(16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고성군 관내 모 중학교 3학년 졸업반으로 교내 댄스동아리 1학년 후배 H모군(14세) 등 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에게 버스비가 없다는 명목으로 금품 9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며 폭행까지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학생들은 선배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말하지 않고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교폭력 안전드림팀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학생들에게 조사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추가 피해나 보복 폭행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

고성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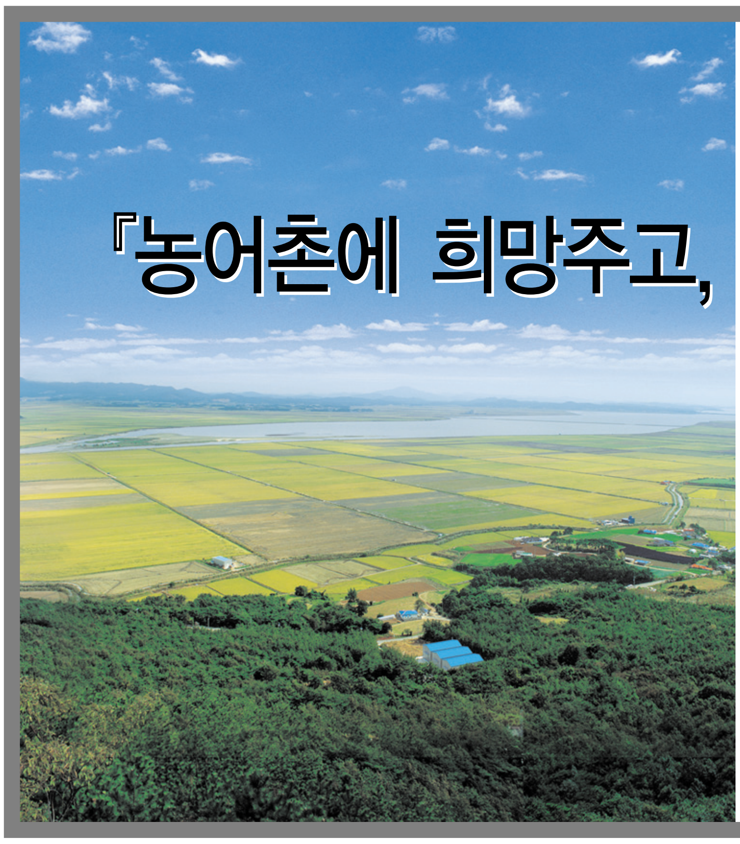
권익위 공익신고 수사기관에 고발 …코·사각턱 시술 광고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의 불법 시술과 허위광고 의혹' 사건을 공익신고로 접수받아 관할 감독기관에 이첩한 결과 7곳의 치과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신고는 ▲치과의사가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각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고, ▲코와 입술,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홈페이지 등에 주름과 볼살 제거, 무턱교정, 입술윤곽 및 낮은 코 성형 등을 수술 없이 보톡스와 필러 등으로 간단히 시술해 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민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 사안에 해당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널리 알리고, 무자격자의 위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창간 1 주년
GOSEONG WEEKLY NEWS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지사장 최 돈 환 외 직원 일동

☎ (033)635-2501